



## 요약

### 사실

마리아 성심의 신심.

### 양성 여정

아홉 살 꿈에서의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 : 스승이신 마리아.

###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9. 나자렛 학교에서의 교육.

###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10. 동정이신 어머니.

### 가족연대기

- 파티마 국제대회를 위한 홍보 비디오.

- 2024년 파티마(포르투갈)에서 개최되는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 기도, 영혼의 숨결.

- 시칠리아 아드마, 제 17 차 마리아의 날.

- 새로운 칼럼 : 아드마 프리마리아가 답하다.

- 죽은 아드마 회원들을 위한 연미사.

### 월간 기도지향

양성중에 있는 남, 여 수도자와 신학생들을 위하여.

## 사실

### 마리아 성심의 신심

P.1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전통과 성경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가톨릭 영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이 신심은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행위 뿐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신자들에게 위로와 힘, 보호의 원천이 됩니다.

P.3

P.5

마리아 성심에 대한 신심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마리아는 하느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 중재하는 사랑의 어머니로서, 모성애와 연민의 상징인 그 마음은, 위로와 보호를 원하는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로 공경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역사에서 마리아만의 분명한 역할을 강조하는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알림을 받고 예수의 어머니가 될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심장이 칼로 꿰뚫리는 고통을 받으리라는 노인 시메온의 예언, 십자가 곁에 현존하는 마리아는,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심과 충실함을 보여 줍니다. 그녀의 마음은, 인류를 위한 그의 아들의 수난과 죽음의 목격자로서, 구원의 신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P.7

P.9

P.9

P.9

P.10

P.11

P.11

P.11

마리아 성심에 대한 신심은, 교회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성인, 신학자, 충실한 신자들은 이 신심을,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 그리스도와와의 일치 이루며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심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17세기의 성녀 말가리따 마리아 알라콕에게 예수님의 성심이 계시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하올 성심에 대한 새로운 신심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마리아의 모성적 성심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알렉산드리나 마리아 다 코스타와 거룩한 마리아 성심 공경과의 관계**

마리아 성심에 대한 깊은 공경을 가진 이들 중에는, 20세기 포르투갈의 신비주의자이며 살레시오협력자 회원인 복녀 알렉산드리나 마리아 다 코스타가 있습니다. 복녀의 글과 증거에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마리아의 모성적 성심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알렉산드리나는 수많은 환시와 계시를 경험했으며, 그녀의 삶은 성체와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강한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평화는 오늘날에도 위협받고 있기에, 복녀가 살던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평화가 전쟁으로 위협받던 걱정스럽고 비극적인 시기에, 하느님으로부터 평화를 선물받은 복녀 알렉산드리나 마리아 다 코스타(1904~1955)의 기여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녀 알렉산드리나는 1937년부터 이듬해까지 교황 비오 11세에게 전 세계를 원죄없으신 마리아의 성심께 봉헌해 달라고 요청하는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일치하여, 예수님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희생된 영혼이기도 합니다. 1938년 10월부터 1942년 3월까지, 알렉산드리나는 매주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수난의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리스도 수난의 모든 사건을 재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알렉산드리나에게, 교황에게 세상을 원죄없으신 마리아의 성심께 봉헌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 비오 12세는 1942년 10월 31일, 세상을 원죄없으신 마리아의 성심께 봉헌했습니다. 알렉산드리나는 계속 완전한 금식을 통해 영혼의 구원과 세상의 평화를 위한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했습니다. 복녀는 13년 7개월 동안 오직 성체성사만을 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25일, 주님승천대축일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주교 및 사제들과 일치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다시 한 번 원죄없으신 마리아의 성심께 봉헌한 것입니다.

**마리아 성심의 신심은, 동정녀 마리아의 모성적 전구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이 신심은, 수많은 신자들에게 위로와 힘의 원천이 되어 왔으며, 수많은 신자들이 마리아의 성심에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알렉산드리나 마리아 다 코스타 같은 성인들의 모범에 따라, 마리아의 성심에 대한 깊은 신심을 길러, 우리의 삶에서 성모님의 능하신 전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성애가 항구하게, 우리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확실한 피난처가 되어, 항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가브리엘 크루즈 트레호 신부SDB,  
ADMA 발도코 영적활성자**

**레나토 발레라,  
ADMA 발도코 회장**



## 양성 여정

### 아홉 살 꿈에서의 마리아의 모성적 증재 : 스승이신 마리아

“내가 너에게 스승을 주겠다”. 꿈 이야기를 읽은 독자라면 누구나 망설임 없이, 예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신비로운 남자는, 요한의 삶에서 마리아가 맡게 될 역할을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교육에 몸과 마음을 바치도록 부름받은 사람에게, 참된 스승의 모범이 중요합니다. 교육자와 교사를 양성하는 사람들은, 젊은 교사가 교실에 처음 들어갈 때,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교육학 이론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자신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자신이 공부하던 교실에서의 경험들이, 더 가치로운 내면화된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보스코의 첫 번째 동료가 되어준 이들이, 그의 소년들이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방교육 안에서 자란 그의 소년들이, 그의 교육적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스승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 즉 참된 ‘지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에게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친절한 사랑으로 친구들을 교육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순명과 지식의 습득을 통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스승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한이 배워야 할 것은, 예방교육의 기술, 즉 그 시대에 흔히 사용되던 폭력이나 억압적 교육방법이 아닌 사랑으로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마리아는 요한에게 사랑의 훈련을 통하여, 젊은이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제자와 모성적/자녀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교육하게 합니다. **사랑받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언뜻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게 합니다.**

지혜의 스승이신 마리아는, 돈 보스코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교회의 전통으로, 성서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날, 그 기억을 잃어버렸지만, 돈 보스코 시대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구약성서, 특히 잠언 8장과 집회서 24장에 나오는 지혜를, 마리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교로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례 개혁 이전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까지, 이 두 본문은, 마리아의 성탄,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와 성모 승천을 기념하는 미사 때 낭독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신자들은, 전례를 통해 신비로운 지혜, 충만함, 기쁨의 여성, 거룩한 삶은 사는 그녀를 동정녀 마리아라고 보았고, 그녀에게 자신을 맡기면,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스승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혜라는 여인은, 실제로 매우 복잡한 인물이므로, 마리아로만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의회 이후에는, 다른 더 적절한 참고 문헌으로 이 구절을 대체하는 것이 선호되었습니다.



지혜서 저자들은 지혜라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정 인물을 지칭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인화라는 수사적 비유를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지혜의 선물,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베푸시는 지혜라는 선물에 열려 있기를 바라며, 그 열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러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남성과 여성들이, 당신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계획을 알고, 완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은총에 열려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여인의 특성을 자신의 인격 안에 구현하며, 하느님의 길로 이웃에게 알리고자 하는 열망과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를 뛰어난 지혜를 지닌 사람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또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마리아의 능력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이며, 이 내용은 교육학적으로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랑함으로써 사랑하게 가르치고, 사랑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방교육의 종합이 아닐까요?

물론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질식하게 하거나 슬퍼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지나치게 허용적인 애정으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친절한 사랑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면, 가끔 오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성 바오로가 사랑의 송가에서 말하듯이, 하느님께서로부터 오는 사랑은, 결코 존중함이 부족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성숙 과정에 수반되는 의심과 실수를 통해서, 그 자신이 되기 위해 배우는 데 필요한 공간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홉 살 꿈에서 마리아는, 즉시 요한에게 지혜로운 사랑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녀는 소년의 질문을 받고, 완전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의 걱정을 진정시키면서, 동시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개인적으로 탐구하고 성숙시켜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화를 마칩니다. 또한 스승은 요한에게 “바라보기”, 즉 **눈앞의 현실에서, 시선을 들어 높이도록 초대합니다. 시선을 들어 높이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을 때 일어나는, 자기 자신에 빠져 있을 때와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소년은 위를 올려다보면서 사나운 동물이 어린 양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한 요청과 함께 하느님의 표징이 주어지며, 이는 부름받은 사람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잉태의 경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사촌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잉태하였으니, “보려” 가라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것이 계시임을 깨닫고, 서둘러 떠나 엘리사벳에게 가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온순한 어린 양으로 바뀐 모습이, 요한에게 그 순간 안도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머리와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거리의 낙오자들을 보면서 요한은, 토리노 감옥의 광경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곳이 바로 그가 일해야 할 터전임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상의 사물과 창조의 요소에서 하느님의 발자취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일상의 현실을 비유로 바꾸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계시와 그분의 구원하심을 인식하는 열린 능력은, 예수님과 그분의 설교에 특별한 방식입니다. 그분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을 바라보시며, 그 안에서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섭리적인 사랑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아홉 살 꿈 속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요한이

본 표징을 비유로 해석하고, 그의 사명과 소명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일도록 초대합니다.

성인이 된 돈 보스코는, 자신이 지혜를 얻었음을, 따라서 스승의 학교에서 꿈을 꾸고 해석하는 능력에서도 좋은 제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비유를 이야기하고 교훈적인 사과를 하는 기술, 판타지와 예술, 모험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에서, 돈 보스코는 자신을, 성경의 동방박사처럼 지혜로운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어머니의 지상적 현존을 상징하는 맘마 말가리타야말로, 돈 보스코의 삶에서, 지혜를 가장 대중적으로 표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그의 단순함으로, 여름 저녁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선하신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관상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묵상에 초대할 때, 자녀들은 그녀의 행동, 선과 악, 체험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가치만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선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해 나가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맘마 말가리타는 자녀들에게 작고 구체적인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겸손한 지혜가 자녀들을 참으로 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덕을 지닌 인간, 지혜를 지닌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며,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린다 포케르 수녀, FMA



#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 9. 나자렛 학교에서의 교육

가정은 사랑과 생명의 요람이므로 첫번째 교육의 장소입니다. 교육은 어떻게 살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성자의 강생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선택하셨기에, 나자렛은 가정의 모델이며, 교육의 모델입니다. 여기서 세례의 날에 축성된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 자녀의 교육과 부모의 성숙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고 모든 교육 여정의 이상인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인간으로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베네딕도 교황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보낸 생애 동안, 동정녀 마리아와 의로운 요셉을 공경하며, 어린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 교육에서 있어서, 가족이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가장 깊이 있고 중요한 성소, 즉 하느님을 만나는 길에 모든 구성원을 동행하며, 그분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계획에도 동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자렛에는 **은총의 질서 안에서, 아주 좋은 세 가지 의미로 우리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교육하신 분이시므로 이미 뛰어난 분이시지만, 예수님께 더 깊은 차원의 교육을 받아 완전한 제자가 되었고, 무엇보다 탁월한 교육적 시각을 지니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어머니와 스승으로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놀라운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폰 슈파이어(A. von Speyr)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깊이 있고 신중하게,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에게 헌신함으로써 상호교환이 이루어지며, 아들은 어머니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순결한 삶으로부터 양육됩니다. ...어머니는 그의 모범을 통해 인간이 그의 동료들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녀의 일상활동을 통해 보여줍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골롬보 추기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도 그녀가 아드님 안에 숨겨진 신비를 더욱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게 되면서, 힘든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했다. 그것은 그의 외아들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선물로 준비되었다는 것이었다.” 하느님의 아들은 마리아로 인해

인간성이 성숙해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성애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신부의 거룩함으로 성화되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신부에 대한 사랑이 하나가 되는 완전한 혼인으로 성장한 요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격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신 것처럼(거룩한 분이시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구분하지 않습니다(원죄 없으신 잉태!). 요셉은 나자렛에서 하느님의 뜻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폰 슈파이어에 따르면, 첫번째 관점으로, “원죄의 법에 따라 요셉은, 혼인과 동정성이 서로 상반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면서 동정녀이고, 하느님께 완전히 열려 있는 마리아와의 약혼을 통해, 한 여성의 진정한 사랑과 모든 무질서한 욕망의 몰락, 하느님께 온전히 봉사하는 기쁨을, 동시에 그리고 통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마리아에 대한 그의 사랑은 충만하면서도 인간적인, 하느님 안에서의 사랑이 됩니다. 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포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포기는 실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가족으로서의 교육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에게 물려줄 첫 번째 교육 유산은 가족 자체이며, 이는 가족 사랑, 가족 구조 및 관련 덕목, 즉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감사하고, 용서하며, 돌보는 관계 안에서 서로 자유로워지는 능력입니다. 지금은 자율이라는 이상과 개인 권리의 가치가, 결혼과 가족을 위태롭게 하고, 정신적, 물질적 황폐함을 초래하는 시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합니다. “가족은 사회의 기초이며 사회 해체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보장해줍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발달과 정서적 성숙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황 바오로 6세의 권위 있는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나자렛은, “가정의 신성 불가침한 성격”과 “온화함을 지닌 대체할 수 없는 가정교육”, “사회질서를 배우는 자연스러운 기능”을 영구적으로 기억시켜주는 곳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나자렛에는 오늘날에도 드러나는 교육적 진리 중 하나가 온전히 빛을 발합니다. 그것은 가정 교육은 증거하지 않고 돌봄만으로 약화될 수 없으며, 양성하지 않고 정보제공만으로 축소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교육하며,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고, 참된 삶을 동행함으로써, 생명의 선물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교사나 강사로서 교육하지 않습니다. 가정교육이, 위생, 영양의 교육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이유는, 그 목표가 삶의 지혜이지 그 어떤 결핍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가정교육에서는 설명이 아니라 이해에, 삶의 걸치레가 아닌 깊이, 분명한 것이 아닌 신비로운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의 기본이, 사랑과 부모의 권위와 자녀의 순종이라고 한다면, 나자렛 가족과의 대조를 통해 잘 드러나듯이, 가정교육은 영원한 삶에 그 근원과 기반을 둔 생명의 신비가,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그래서 에르메스 론치 신부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한계,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아내의 한계 안에서, 그들의 속도에 맞추어 주면서, 지혜와 은총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둘러싸고, 가족을 성장시키는 보살핌과 몸짓, 말에 비해 매우 늦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요셉은 삶의 모든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도 이를 용기있게 받아들일 줄 알았기에, 모든 부모에게 용기를 주는 모델입니다. 아모르트 신부는 마리아에 관한 저술에서, “하느님, 어찌하여 그토록 사랑하는 이 거룩한 배우자들에게 이렇게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현명하게 답합니다. “나는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자에게 십자가의 희생을 요구하신 것과 같은 이유라고 믿습니다. 하느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행하라고 요구하시지, 우리가 지상에서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분의 심오한 뜻을 이해하라고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자주 우리 삶의 길은 우리의 예측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받아들임의 큰 모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주, 그 이유를 말하거나 이해시키지 않으시면서도, 자신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에서 그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지만, 그분의 은총과 뜻에 대한 우리의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결정과 답변은, 우리의 불확실한 뜻으로,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노출되어, 세상에 전할 말을 잃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므로” (루카 16,10) 많은 것이 맡겨지며,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얼마나 온순한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자렛의 가정교육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자렛에 머무는 동안 아모르트 신부는,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거룩함은 위대한 업적에 있지 않고, 과거에 대한 지나친 후회나 미래에 대한 지나친 불안이 아닌, 가식 없이 날마다 의롭게 사는 데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로베르토 카렐리 SDB**

#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 10. 동정이신 어머니

“동정이신 어머니”는 단테의 신곡의 마지막 노래에서, 성 베르나르도가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어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당신 아들의 딸이며, 피조물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뛰어난 피조물”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구절은 마리아와 함께 생태를 돌아보는 매월 묵상의 전체 제목인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로 사용되었으며, 이제 그것에 대해 더 탐구하고 이해하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탁월한 시인은,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대조를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대조는 일반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비유적 표현으로, 이 경우에는 마리아라는 인물의 인간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서의 비범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사실 마리아에게서 몸과 마음의 순결은, 탁월한 모성애의 결실이 되며,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은총이고, 신앙 안에서는 그의 딸이 되는 것이기에, 그녀는 겸손의 모범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 하느님께서 그녀를 들어 높이십니다.**

또한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원은,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시며, 성부와 같이 참 하느님이심을 선포하는, 특별한 대조를 통해서 정의됩니다. 사람으로서 성자께서는, 창조에 내재되어 계시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므로, 창조의 일부가 되시고, 또한 하느님으로서, 세세대대에 이르기까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주창조에 참여하십니다. 이렇듯이 성자께서는 특별한 위치에 계시면서, 하느님과 세상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그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는 계획이며(에페 1,10), 창조된 모든 것이,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의 친교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하느님으로 다시 충만하게 됩니다.

단테가 세 가지 대조를 통해 마리아를 묘사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개인적인 면이 아닌,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동정으로 성자를 잉태하여 어머니가 되는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교육하는 초월적인 성자와의 관계입니다. 영원으로부터 그녀를 선택하시고 영광으로 그녀를 일으키신 창조주 성부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 베르나르도의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단테의 첫 번째 삼중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한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처음 두 구절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의 세 번째 구절은 “영원으로부터 합의된 정해진 지점”으로, 마리아가 하느님의 지혜로 우주를 창조하신 고정된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화가가 원근법의 법칙에 따라 풍경을 그리기 위해, 가장 먼저 모든 선이 모이는 고정된 지점, 즉 소실점을 표시해야 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피조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구상하셨습니다.

마리아처럼 모든 피조물은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느님의 창조력은 피조물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훼손시키거나 파괴하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번성하게 합니다. 더욱이 모든 피조물은 각각 그들의 피조물도, 영원의 요람에서부터 마치 태 안에 잉태되듯, 요람이신 성자와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창조됩니다. 마침내 모든 피조물은, 하나의 고유성과 관계의 다양성 안에서, 그 고유한 정체성과 관계의 다양성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분 사랑의 영광 안에서 자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연약함과 상호 의존성 때문에 겸손하거나 겸손하게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 사실 창조된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없으며, 이러한 근본적인 자급자족에 대한 결핍은, 자신을 열게 하고, 자신을 나누게 주게 하며, 선물로 받도록 하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피조물, 특히 연약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인간이, 번성하기 보다 포식자처럼 이웃을 공격한다면, 서로의 선물에 상호 개방되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하면서, 이웃과 자연, 심지어 하느님의 것까지 빼앗으려 한다면, 이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테가 제안한 세 가지 대조는, 삼중주를 마무리하는 구절이 제공하는 열쇠를 통해 읽으면, 생태적 전환의 전체 프로그램과 통합 생태학의 신학적 기초에 대한 훌륭한 종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마리아의 동정성과 모성에 대한 언급은, 우리를 잘못 인도하여, 왜 우리는 안되고, 하느님의 어머니만 되는 것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부들은, 마리아의 동정성, 즉 창조주의 손에서 지금 막 태어난 피조물의 순결에 대해 어떻게 해석했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성적 결합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본래의 완전성을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죄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자녀들과의 관계는, 고통과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원초적 순결을 회복한다는 것은, 폭력 없이 다산과 서로 선물을 나누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는, 하나밖에 없는 사건이며,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원초적 순결은, 세례를 통해 회복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모든 피조물은,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성 바오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으며,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 8,19~22). 인간이 잘못된 선택으로 세상에 가져온 악은, 사실 전체 피조물의 조화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 역시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세계의 구원은, 오직 남성과 여성이,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충실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비옥한 자궁에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것으로부터, 성부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각자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적 생태학과 생태적 전환에 관한 교황의 가르침을 교육하고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물론 단테가 살던 시대에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기후 위기와 생태적 재앙을 상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기와 이기심, 폭력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인간의 마음이 사랑으로 감동과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테는, 인간의 비참함의 깊이에서 성덕의 높이로 이끈, 긴 여정의 끝을 정확하게 마리아에게로 향합니다. 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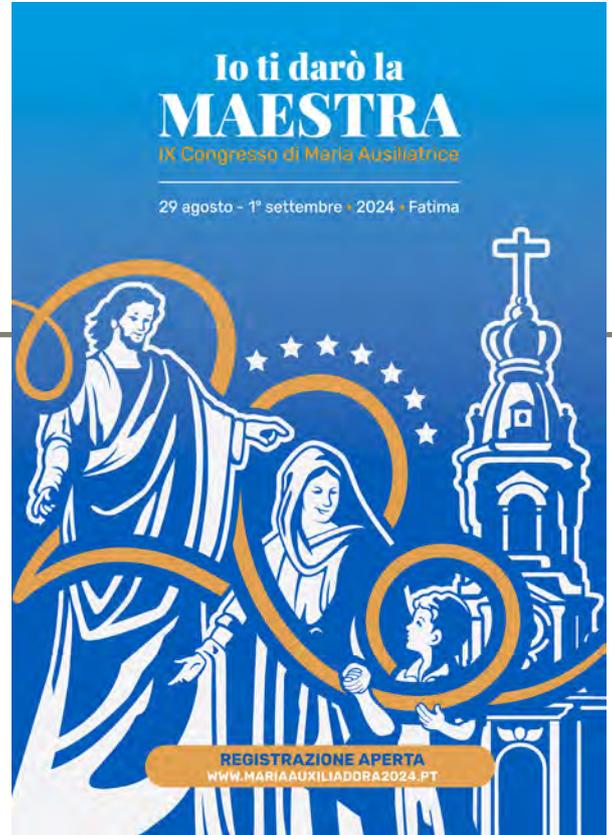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준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피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위로해 줄, 어머니, 자매, 친구가 필요합니다. **성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마리아를 생각하시어, 때때로 우리의 삶이, 뒤틀린 선을 수렴하는 소실점으로, 우리의 지평선에 고정된 별처럼, 그의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그분의 전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관계, 행동, 지향에, 깨끗함과 결실의 선물을 주시라고 간청합니다.**

린다 포케르 수녀FMA

## 가족의 연대기

### 파티마 국제대회를 위한 홍보 비디오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파티마에서 열리는 제9회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https://mariaauxiliadora2024.pt>) 등록이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살레시오 가족의 이 중요한 행사의 조직팀은 전 세계 살레시오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9개의 홍보 비디오 시리즈입니다. 해당 링크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2024년 파티마 (포르투갈)

도움이 필요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15,000유로를 기부해 주신 분들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부 받은 금액은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여러 단체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기쁨으로 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내가 · 너에게  
스승을 · 주겠다

도움이신 마리아 제9차 대회

파티마 2024년 8월 29일 - 9월 1일

등록이 시작됩니다

[www.mariaauxiliadora2024.pt](http://www.mariaauxiliadora2024.pt)

### 기도, 영혼의 숨결

모네세세, 토리노, 산 베니노 카나베제, 니짜 몬페라토, 모르네세, 레르마에서 온 아드마 회원들이 알토 몬페라토 언덕의 포근함과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의 환대를 받으며, 4월 27일과 28일, 이틀간 모르네세 기숙학교에서 피정을 했습니다.

성찰과 기도, 즐거움이 있는 인상적인 날들이었습니다.



ADMA 세계 영적활성자인 루크레치아 우리베 수녀는 “기도를 잘하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기도하라”와 “마자렐로 수녀의 마리아 영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우리를 묵상으로 초대했으며, 여기서 젊은 마인은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성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즉 단순하고 매우 개인적이며, 자발적인 기도를 통해 그녀는, 하느님과 친밀해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커지면서,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이 된 마인의 영성은,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의 앞·뒤를 가리키며, “그분은 여기, 우리는 여기”라는 의미 있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순명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여인, 마리아”라는 주제로 한, 모르네세 FMA 공동체의 본당신부이자 알렉산드리아 CFP의 조정자인 피에트로 멜라노 신부(SDB)가 강의에서는, 마리아는 겸손하고 단순한 기도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열린 자세의 모범이십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마리아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날들이 부르심임을 깨닫게 해주는 여성이셨습니다.

침묵과 묵상으로 보낸 이 날은, 성시간과 저녁 성무일도를 바쳤으며, 루크레치아 우리베 수녀와 가브리엘라 파티뇨 수녀가 준비한 거룩한 묵주기도는, “복된 여인 마리아”에 대한 묵상과 함께 바쳤습니다.

### 시칠리아 아드마, 제 17 차 마리아의 날

2024년 4월 28일 일요일, 시칠리아 아드마의 제17차 마리아의 날이 팔레르모에 있는 FMA 마드레 마자렐로 관구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살바토레 디 마이오 회장과 관구위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극장에 입장했으며, 지역 내 11개 센터에서 2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표지가 되는 꿈’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젊은 살레시오회원인 스테파노 코르테시아노 신부는, “우리는 꿈꾸는 자의 자녀이므로, 원대한 꿈을 꾸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아름다운 묵상으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돈 보스코의 아홉 살 때의 꿈을 주제로 한 스테파노 신부는, 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이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초대해주는 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플로리디아 아드마의 영적 활성화자인 살바토레 니코시아 신부는 강의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삶이 주는 상처로 꿈을 꾸기가 어렵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고통을 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젊은이 그룹의 아드마 이니셔티브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 발표를 시작으로, 몇 가지 체험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로사리오와 플로리디아의 피나 수녀는 처음으로 살레시오 영성의 날에 참여한 경험을 나누었고, 마리아를 깊이 사랑하는 라구사의 살바트리체와 조르조는 오랫동안 본당에 마리아 신심을 전파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1966년에 만들어진 아드마 프리마리아 회원증을 강의실에서 발견했지만, 회원은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진 지회를 되살리기 위해 성모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느꼈고, 이제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움으로, 지역평의회 도움을 받아 첫 걸음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롬바르디아 에밀리아 관구위원이며 아레세(MI)의 아드마, 프란체스코와 데보라가 성모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헌신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스테파노 코르테사노 신부의 주례로 미사가 거행되었고, 이어서 성시간이 파올라 시칼라 신부의 강복으로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체성사와 성모님의 사랑으로, 가족정신 안에서 사랑과 환대가 넘치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 새로운 칼럼 : 아드마 프리마리아가 답하다

독자 중 한 분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인 관심사에 답하기 위해 새로운 칼럼으로 ‘아드마 프리마리아가 답하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제에 대한 제안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adma@admadonbosco.org](mailto:adma@admadonbosco.org))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망한 아드마 회원들을 위한 연미사

매월 24일 전 세계에서 사망한 모든 아드마 회원들을 위해 토리노 도우미신 마리아 대성당에서 오전 9시에 추모미사가 거행됩니다.



## 월간 기도지향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향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아드마 그룹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 조국을 떠나 이주해야 이들을 위해

우리는 전쟁과 기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험과 폭력이 있는 여정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을, 이주 국가에서 받아들여, 그들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우미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mailto:adma@adma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